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특성

The Appointment Characteristics of Ecological Landscape preservation Areas in Seoul

정보광¹ · 김영신¹ · 이숙미¹ · 오충현²

¹동국대학교 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 ²동국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I. 연구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된 도시화는 우리 도시지역에 있던 많은 자연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훼손시켰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지역에서도 자연 생태계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단위에서 지정되고 관리되던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도시 단위에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우리나라에서 도시화의 진행이 가장 활발한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2004년 12월 제목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개칭되기 전까지는 생태계보전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작업이 있었는데, 이중 생태경관보전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1997년과 2004년 2차례의 전문개정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제도의 명칭도 자연생태계보전지역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다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변화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을 기반으로 서울시 차원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1999년 서울시 조례로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해오고 있다. 서울시자연환경보전조례에서 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서울시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1999년 밤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1호로 지정한 이래 2007년 12월까지 총 1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추가 지정 방향성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시에서 지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입지별 특성, 면적, 지정사유 등을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등을 통해 분석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경과 및 지정 현황

서울시에서는 1999년 3월부터 2001년 3월에 걸쳐 서울시 전역에 대한 토지이용, 토양피복, 현존식생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하였다. 이 지도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비오톱 특성을 유형으로 구분하고 비오톱 유형 및 개별 비오톱별 보전가치를 평가하였다. 이 지도 제작과정에서 서울시의 자연환경보전조례가 제정되자, 밤섬을 우선적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비오톱의 보전가치가 높고

서울시에서 희귀한 비오톱 특성을 가지는 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에서는 1999년 1호로 지정된 밤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시작으로 2000년 1개소(둔촌동), 2002년 4개소(탄천, 방이동, 암사동, 진관내동), 2004년 2개소(고덕동, 청계산 원터골), 2005년 1개소(현인릉), 2006년 3개소(남산, 불암산 삼육대, 창덕궁 후원), 2007년 2개소(봉산, 인왕산) 등 총 14개소 4,053,819㎡를 지정하였다. 서울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특성

표 1과 같이 서울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의 흐름은 대상지별 특성에 따라 습지지역 지정, 산림지역 지정, 자연경관지역 지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습지지역 지정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9개소가 지정되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건수의 64%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습지지역에 대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이 집중되었던 것은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경작지와 저수지, 소규모 습지들이 대부분 택지로 변화하면서 사라지게 되었고, 도시에 남은 습지지역이 매우 희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습지지역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로서

도시생태계 복원 및 보전의 거점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지정우선순위가 높았다. 또한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일환으로 습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다양한 습지들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둔촌동 습지, 진관내동 습지 등과 같이 시민들이 먼저 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여 지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습지의 경우 하천 주변의 하반립이나 하중도를 지정한 경우가 4건(한강 밤섬, 탄천, 암사동, 고덕동), 하천 이외의 고립된 내륙습지를 지정한 경우가 3건(둔촌동, 방이동, 진관내동), 산림내 습지 지역을 지정한 건이 2건(청계산 원터골, 현인릉)이 있다.

생태경관보전 지역중 산림지역이 지정된 것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되었다. 전체 지정 건수는 4건으로 전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28%에 해당한다. 산림은 서울시 외곽에 넓은 면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다른 자연 자원에 비해 희소성이 부족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데 많은 검토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신갈나무 군집(남산), 산림보전이 양호한 지역에 분포하는 서어나무 군집(불암산 삼육대), 평지지형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면적이 작고, 군집이 희

표 1.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구분	위 치	면적(m ²)	특 징	지정일
한강밤섬	여의도동, 당인동 일대 한강	241,490	철새도래지, 하천	99.08.10
둔촌동	강동구 둔촌동 212 일대	24,696	습지, 오리나무 숲	00.03.06
방이동	송파구 방이동 443-8 일대	58,909	습지, 생물다양성	02.04.15
탄천	타천1교 ~ 대곡교	1,404,636	철새도래지, 하천	02.04.15
진관내동	은평구 진관내동 78 일대	16,639	습지, 생물다양성	02.12.30
암사동	한강 광나루	102,497	자연호안, 하천	02.12.30
고덕동	암사취수장 ~ 강일IC	320,377	자연호안, 하천	04.10.20
청계산 원터골	서초구 원지동 산4-38일대	146,281	낙엽수림대, 산림습지	04.10.20
현인릉	서초구 내곡동 산 13-1	56,639	오리나무숲, 산림습지	05.11.24
남산	예장동 산4-38 일대	705,101	신갈나무숲, 산림	06.07.27
불암산 삼육대	공릉동 산223-1 일대	204,271	서어나무 숲, 산림	06.07.27
창덕궁 후원	와룡동 2-71일대	440,707	갈참나무 숲, 산림	06.07.27
봉 산	은평구 신사동 산 93-16	73,478	팔배나무 숲, 산림	07.12.27
인왕산	홍제동 산1-1 일대	258,098	자연경관, 기암, 소나무	07.12.27
계	14개소	4,053,819	-	-

소한 갈참나무 군집(창덕궁 후원), 대규모의 팔배나무 군집(봉산) 등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마지막으로 2004년 생태계보전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자연경관요소가 수려한 지역에 대한 보전지역 지정근거가 마련되면서 2007년 인왕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IV. 결 론

서울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물게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울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초기에는 습지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기 시작하다가, 산림지역, 자연경관 이 수려한 지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010년까지 매년 1개소씩을 추가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16개소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추가될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앞에서 고찰한 3개의 유형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특성상 이런 지역 이외에도 역사 및 문화적인 요소를 지닌 도시지역의 특성을 가진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